

제3절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

1. 개관

청동기시대의 시대구분은 지역이나 연구자마다 견해차를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는 초기 철기시대의 분리여부이다.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볼 때, 세형동검과 원형점토대토기가 나타나는 초기철기시대를 포함할 경우, 조기(돌대문토기) → 전기(가락동·역삼동·흔암리식 토기) → 중기(송국리식 토기) → 후기(원형점토대 토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초기철기시대를 따로 분리할 경우에는 조기(돌대문토기) → 전기(가락동·역삼동·흔암리식 토기) → 후기(송국리식 토기)로 단계를 설정하기도 한다.⁶¹⁸

그러나 울진지역은 동해안지역에 포함되어 조금은 다른 전개양상을 보인다. 동해안지역의 청동기시대 시기구분 역시 같은 맥락은 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박영구(2015)⁶¹⁹는 동해안 청동기시대 취락을 조기(돌대문·이중구연·공렬문토기) → 전기(가락동·역삼동·흔암리식 토기) → 중기(역삼동·검단리식 토기) → 후기(원형점토대 토기)로 단계구분을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초기철기시대를 따로 구분하였으므로 박영구(2015)의 편년안을 수정하여 조기(돌대문·이중구연·공렬문토기) → 전기(가락동·역삼동·흔암리식 토기) → 후기(역삼동·검단리식 토기)로 3시기 편년안을 적용하였다.

절대연대를 통해보면 춘천 현암리 1호 주거지 BP 3010±60, 정선 아우라지 1호 주거지 BP 3010±60, 원주 동화리 1호 주거지가 BP 3050±50으로 측정되어 BC 13~12세기 경 동해안지역에 조기 청동기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기는 BC 12세기에서 BC 800년경 사이, 후기는 BC 800~480년 사이로 볼 수 있다.⁶²⁰

울진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영동지역에서 시작하여 형산강 일대까지 번성하던 동해안 문화권에 편입시킬 수 있다. 주로 소규모 취락과 분묘, 유물산포지의 형태로 동해안과 가까운 하천변이나 구릉에서 확인되나 많은 수량은 아니다.

취락은 봉산리 494-1유적, 죽변리유적, 후정리 877유적, 덕천리 372유적 등 5개소에서 주거지 몇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이 확인되었다. 분묘는 지표조사된 지석묘가 1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구리 254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관묘와 토광묘 각 1기가

618. 김장석, 2007, 「청동기시대」『한국 고고학 강의』, 한국고고학회, 75쪽

619. 朴榮九, 2015,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70쪽

620. 朴榮九, 2015, 위 논문, 40~62쪽

있다. 그 외에는 유물산포지 9개소 정도가 있다. 조성시기는 청동기시대 초기의 유적은 확인된 바 없으며, 대부분이 전기 유적이며, 후기 유적도 일부 확인된다.

이런 결과는 울진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사례가 부족한데 기인한다. 울진지역의 청동기문화는 동해안 문화권의 다른 지역들과 같이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왕피천, 척산천, 나곡천, 부구천, 남대천 등의 주변 구릉과 곡간평야, 동해안의 사구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유적과 유물

1) 울진 고목리 13유적(蔚珍 古木里 13遺蹟)⁶²¹

유적은 북면 고목리 13번지 일원으로 북서쪽으로 인접하여 해발 30.9~44.6m 구릉 일대에 분포하는 고목리 유물산포지의 남쪽 구릉 말단부인 해발 9~11m 사이에 위치한다.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토기가마 1기, 노지 1기, 수혈 2기, 주혈 8기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토기가마 주변에서 무문토기 저부 2점이 수습되었다. 유적의 위치는 전면에 흐르는 소하천 주변으로 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고, 배후에는 나지막한 구릉이 이어져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동해가 펼쳐져 있다는 입지적 특징을 보인다. 더불어 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져 동일한 입지상에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가 조사된 울진 덕천리 372유적이 있고, 남쪽 소하천 건너편에는 고목리 지석묘군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와 주변 유적의 분포양상을 통해보면, 이 일대에 광범위한 범위로 청동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울진 고목리 지석묘군(蔚珍 古木里 支石墓群)⁶²²

북면 고목리 산22번지 일원으로 고목3리 시목동(감나무골)으로 가는 길의 우측 산 능선에 위치한다. 강릉 최씨묘 부근 능선을 따라 10기 가량 분포하는데, 원래의 위치가 이동된 것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석은 부정형 암괴로 크기는 길이 1.4~2.2m, 너비 0.22~0.75m, 두께 0.35~37m 정도이다.

3) 울진 금음리 무문토기산포지(蔚珍 金音里 無文土器散布地)⁶²³

후포면 금음리 산188번지 일원으로 후포면 금음리에서 온정면 덕인리를 잇는 지방도로

621. 聖林文化財研究院, 2017,『蔚珍 古木里 13番地 生產遺蹟』

622.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앞 책, 281쪽

623. 삼한문화재연구원, 2007,「울진 후포 태양광발전소 조성부지 내 문화재지표조사」

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부를 기점으로 남쪽과 남동쪽으로 갈라지는 지점의 능선과 남사면 일대에 유적이 위치한다. 유물은 주로 민묘 주변에서 수습되었는데, 무문토기 동체편과 주거지의 벽체편으로 보이는 소토편이다. 입지적인 조건과 무문토기편으로 볼 때 이 일대에는 청동기시대 생활유적이 유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울진 나곡리 지석묘(蔚珍 羅谷里 支石墓)⁶²⁴

북면 나곡리 660-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나리[羅谷]와 골마[谷里]마을 사이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나지막한 능선이 있고, 이 능선 하단 경작지가 시작되는 곳에 지석묘 1기가 있다. 현재 위치는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 구릉지 일대로 지석묘가 군을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석묘는 장축이 남북향이며, 크기는 길이 2.75m, 너비 1.85m, 두께 0.77m 정도이다. 석질은 편마암이며, 길쭉한 부정형 판상석으로 상면과 측면으로 20여 개의 바위구멍이 새겨져 있다. 상석 아래에 3개의 지석이 보인다.

5) 울진 노음리 유물산포지①(蔚珍 老音里 遺物散布地①)⁶²⁵

근남면 노음리 460번지 일원으로 당두와 오노동마을 사이로 뻗어내린 해발 30m의 구릉 정상부 일대에서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토기편과 석기의 박편이 수습되고 패총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광천과 왕피천이 합수되는 지점의 동편으로 해발 200m 성류산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얇은 구릉지에 해당되며, 전방으로는 천변에 탑들, 장평들이 펼쳐져 있어 취락이 형성되기에 양호한 입지조건을 보인다.

6) 울진 덕신리 무문토기산포지(蔚珍 德新里 無文土器散布地)⁶²⁶

매화면[구 원남면] 덕신리 538-2번지 일원으로 덕신리 후리동의 바닷가에서 서쪽 내륙으로 300m 정도 가면 좌우의 산이 간격을 좁혀 병목처럼 작은 계곡을 이루는 곡저평야가 있다. 이곳은 개체골마을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경작지 일대에 무문토기 산포지가 위치한다. 산포지와 연결된 구릉 일대는 삼국시대 덕신리고분군이 분포하는데, 국도 7호선 확장공사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청동기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문토기편이 출토된 바 있다. 이로 보아 덕신리 후리동마을과 연결되는 개체골마을 일대의 구릉과 곡간에는 청동기시대 취락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624. 蔚珍郡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267쪽 ; 심현용, 2002, 「동해안 지방 지석묘 시론-경북 울진군을 중심으로-」『향토문화』17, 대구향토문화연구소, 107~108쪽

625. 蔚珍郡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위 책, 287쪽

626. 울진군안동대학교, 1991, 『울진의 문화재』; 안동대학교박물관, 2004, 『울진 덕신리 유적』

7) 울진 덕천리 372유적(蔚珍 德川里 372遺蹟)⁶²⁷

유적은 북면 덕천리 일원으로 울진-죽변-임원-삼척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인 구7번 국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울진 원자력발전소 후문 진입로 서쪽 능선으로 덕천리 마을에서 덕금골로 이어지는 진입로의 동편 곡간지와 구릉지 및 충적평야 지역이 포함되는 곳이다. 조사구역 능선상단은 원자력발전소 진입로가 남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소구릉지는 덕천리 고분군과 연결되는 능선부에 해당한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신울진원전건설부지내 유적 조사III구역7지점의 E구역에서 주거지 3기와 수혈 11기[1~8·10~12호 수혈], F-2구역에서 주거지 3기, G구역에서 주거지 1기와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방형과 (세)장방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사면 아래쪽 장벽부가 대부분 유실되어 분명하지는 않지만 길이방향이 등고선과 나란하다. 잔존규모는 길이 2.70~10.14m, 너비 1.32~2.70m[복월 3.00~4.56m], 깊이 0.14~0.31m 정도이다. 이 중 대형은 E-3호 주거지이며, 중형은 F-2-3호 주거지이고, 나머지는 소형에 해당한다.

내부시설은 주혈, 노지, 벽구가 확인되었다. 주혈은 대부분 없거나 몇 개만 있어 구조파악이 어려운 것이 많다. 주거구조의 추정이 가능한 것은 F-2구역의 주거지 3기로 1호와 2호 주거지는 6주식, 3호 주거지는 8주식으로 추정되나 분명하지는 않다. 노지는 F-2-1호 주거지에서만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수혈식 원형노지 1기가 확인되었다. 벽구는 주거지의 벽면을 따라 조성되었는데, E구역 1·2호 주거지를 제외한 5기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공열문토기, 무문토기 저부 등 토기류 11점과 석검, 반월형석도, 주상석도, 합인석부, 석착, 갈돌, 갈판 등 석기류 23점을 포함하여 34점이 출토되었다.

조성시기는 주거지의 구조와 공열문토기, 반월형석도, 합인석부 등 유물의 특징으로 미루어 청동기시대 전기~후반으로 전개되는 교체기로 추정된다. 또는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E-3호 주거지는 전기, 나머지 주거지는 후기전반으로 나누어볼 여지도 있다.

8) 울진 명도리 지석묘(蔚珍 明道里 支石墓)⁶²⁸

울진읍 명도리 산183번지 일원으로 도청동 마을 동편으로 솔골과 도정골을 나뉘는 능선의 서쪽 말단부에 위치한다. 상석은 장방형의 편평한 화강암이며, 크기는 길이 2.4m, 너비 1.1m, 두께 0.4m 정도이다. 상석의 길이방향은 남북향으로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627.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울진 신울진원전건설부지내 유적 조사III구역7지점 蔚珍 德川里 三國時代 生活遺蹟』

628. 蔚珍郡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위 책, 253쪽

9) 울진 봉산리 494-1유적(蔚珍 烽山里 494-1遺蹟)⁶²⁹

유적은 기성면 봉산리 494-1번지 일원으로 울진공항 건설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태백산맥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이 해안에 이르러 낮은 구릉을 형성하는데, 해발 40~70m 정도의 낮은 구릉 남사면부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남북으로 형성된 2개의 가지능선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가 조사되었다. 발굴보고서에는 5기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중 3호 주거지는 초기철기시대 주거지로 파악되었다.

청동시대 주거지 4기는 모두 길이방향이 등고선과 나란하다.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1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3기는 사면 아래쪽인 남동장벽은 완전히 훼손된 상태이다. 출토된 토기류는 1호 주거지에서 구연단에 붙어 내부에서 외부로 반투공된 공열문토기 1점, 3호 주거지에서 무문토기호 1점, 5호 주거지에서 호편 1점을 제외에 나머지는 동체편 5점이 전부이다. 석기는 5호 주거지에서 편평편인석부 1점이 출토되었다. 그 외 지표수습된 무문토기편과 2단병식 마제석검 1점이 있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공열문토기와 지표채집된 이단병식 마제석검의 특징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 전기로 편년해볼 수 있다.

10) 울진 봉평리 487유적(蔚珍 鳳坪里 487遺蹟)⁶³⁰

유적은 죽변면 봉평리 487번지 일원으로 북쪽에서부터 봉평리로 뻗은 해발 30m 내외 저구릉성 산지의 남사면 말단부로 곡간충적지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한다. 남쪽으로 80m 가량 떨어져서는 초평천이 흐르는데, 유적은 초평천 하류 좌안의 경사변환점에 해당한다.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퇴적토의 제거과정에서 무문토기 발과 저부 각 1점, 합인석부 3점이 수습됨을 통해 청동기문화의 존재를 알 수 있다.

11) 울진 부구리 254유적(蔚珍 副邱里 254遺蹟)⁶³¹

유적은 북면 부구리 254번지 일대에 위치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직원사택[2차분] 신축공사부지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북면 부구1리의 북쪽 및 서쪽을 병풍처럼 둘러싼 저구릉성 산지[해발57.7m]의 구릉 사면부에 위치한다. 주변으로는 부구리 지석묘군 및 지석묘, 나곡리 지석묘 등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석관묘 1기, 토광묘 1기, 수혈유구 5기, 구상유구 5기가 확인되었으

629. 江陵大學校博物館, 1999, 「울진공항 건설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강릉대학교박물관, 2000, 『울진공항 건설 실시설계(토목 및 항공보안시설)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보고서』; 中央文化財研究院, 2002, 『蔚珍空港 建設地域內 蔚珍 烽山里 遺蹟』; 蔚珍郡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앞 책, 324쪽

630. 삼한문화재연구원, 2017(b), 앞 책

63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9, 『울진 부구리 254번지 유적』

며, 마제석검, 반월형 석도, 주상편인석부, 석부, 석축, 무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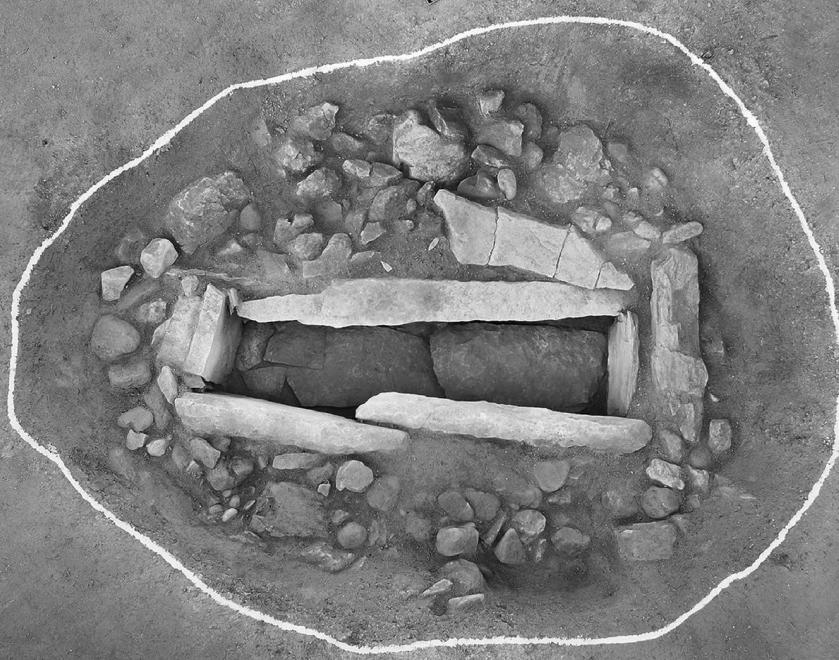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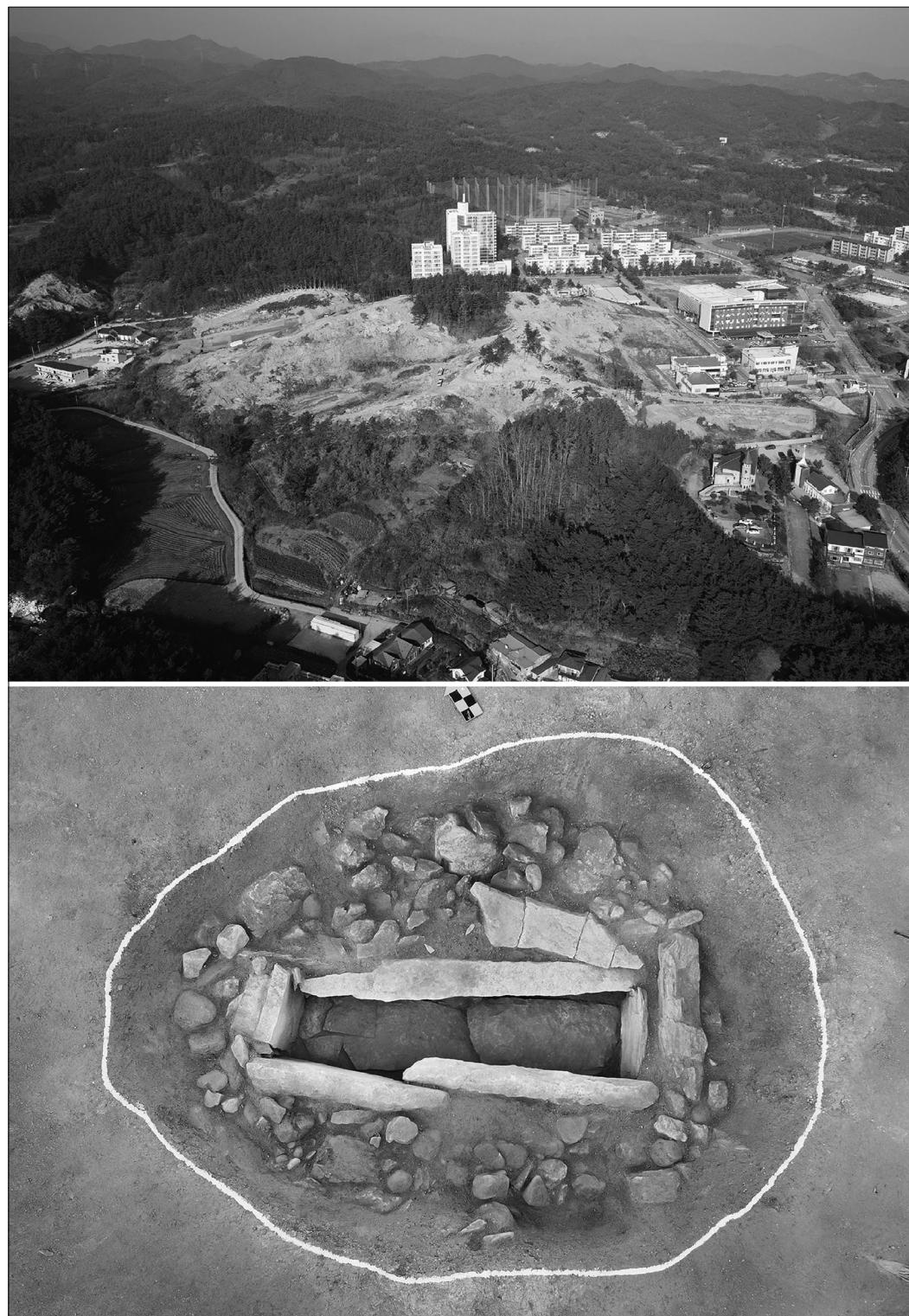
석관묘는 상광하협의 묘광을 굴착하고 바닥에 판석 2매를 깐 후 장벽에는 판석 1매 또는 2매를 겹쳐 마련하고, 장벽 사이에 작은 판석 1매를 끼워 넣은 평면 ‘ㅍ’자형 구조이다. 그 위에는 넓은 판석 1매를 덮었으며, 주변으로는 판석과 천석으로 위석한 형태이다. 유물은 석곽과 묘광 사이의 충전토에서 석축 10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무경식으로 삼각만입식이 5점, 삼각식이 5점이다. 삼각만입식의 경우 만입부가 직삼각형, 편만곡형, 편삼각형 등 다양하다. 영남 동해안 및 내륙지역의 마제석축은 삼각만입식에서 점차 만입부가 약해지는 변화가 보인다는 기존 연구⁶³²를 통해 보면 청동기시대 전기 중·후반의 유물로 판단된다.

토광묘는 장축이 등고선과 직교되며, 상부가 삭평되어 자세한 구조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중앙부에서 마제석검 1점과 석축 3점이 출토되었다. 마제석검은 이단병식으로 병부 중앙에 홈을 내어 좁힌 형태이며, 석축은 삼각만입식 무경식석축이다. 두 유물 모두 청동기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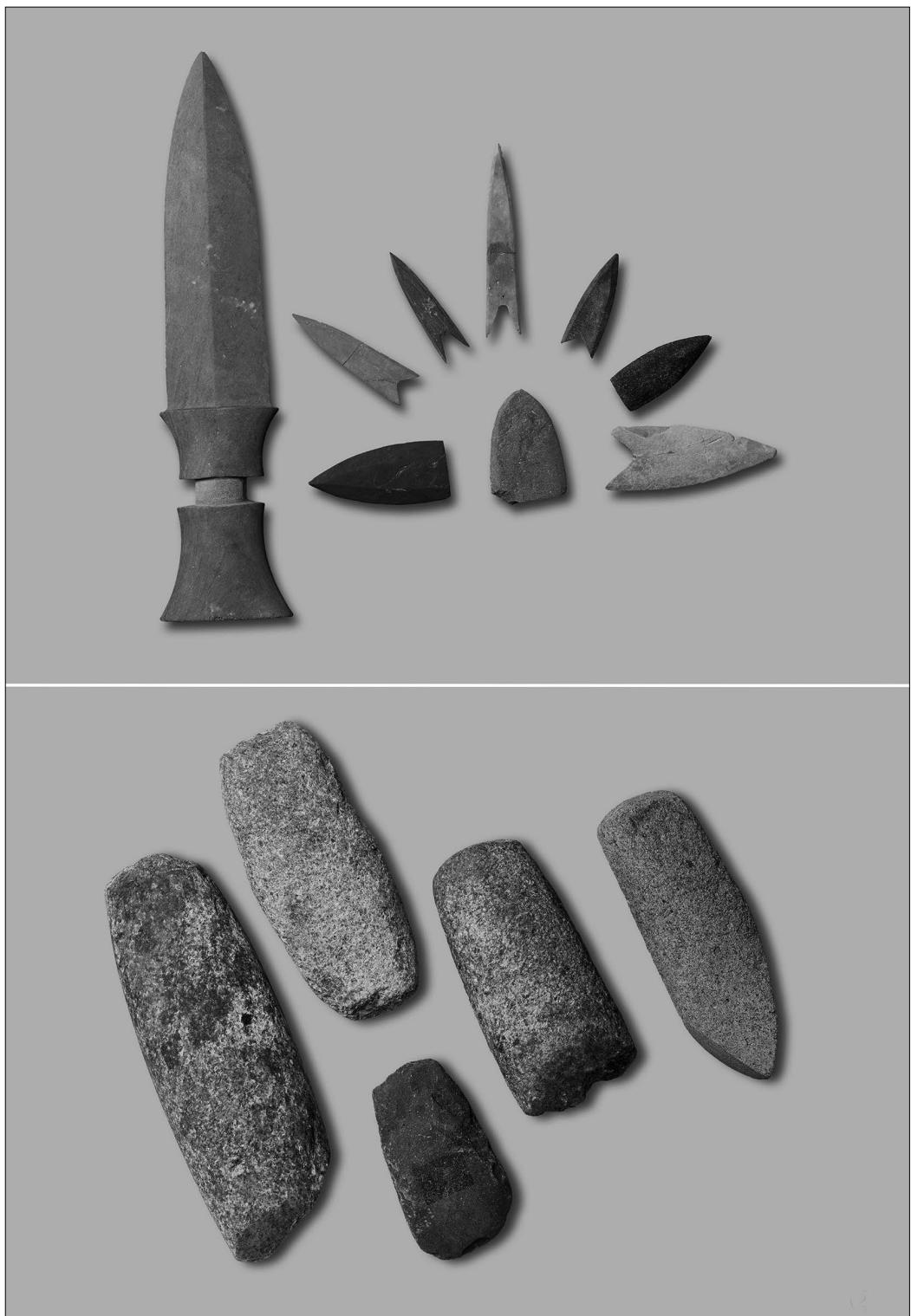
그 외 수혈과 구는 성격이 불분명하지만 생활유구로 추정된다. 수혈 5기에서는 석축, 미완성 석기, 무문토기편 등, 구상유구 5기에서는 주상편인석부, 반월형석도편,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해당 유구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형식적인 면에서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동시기의 것으로 청동기시대 전기에 편년된다.

632. 최수영, 2015, 「영남 동해안·내륙지역 청동기시대 마제석축의 성격 검토」『科技考古研究』21, 아주대학교 박물관



<그림 125> 부구리 254유적 전경 및 청동기시대 석관묘



<그림 126> 부구리 254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 석기류

12) 울진 부구리 지석묘(蔚珍 副邱里 支石墓)⁶³³

북면 부구리 168-1번지 일원으로 부구리 장터마을의 식당 주방에 지석묘 상석 1기가 위치한다. 상석의 상부 일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드러난 부분은 삼각형에 가까우며, 한변의 길이는 1.5m 정도이다. 주변은 시멘트로 마감된 상태이다.

13) 울진 부구리 지석묘군(蔚珍 副邱里 支石墓群)⁶³⁴

북면 부구리 639번지 일원으로 부구 2리 하흥부동마을의 동편에 위치한 성황당 주변에 위치한다. 성황당 주변으로는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10여 기 정도의 암괴가 흩어져 있다. 상석은 길이 2.0m 정도의 편평한 장타원형으로 지석이 확인되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원래의 위치가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14) 울진 산포리 선사유적(蔚珍 山浦里 先史遺蹟)⁶³⁵

근남면 산포리 697-1번지 일대로 망양정이 있는 해발 5~53m에 이르는 얕은 구릉지에 해당한다. 구릉은 동쪽으로 동해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왕피천이 흐르며 형성된 충적평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구릉 정상부 일대의 무덤 부근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과 석부, 박편석기 등이 다수 채집된 바 있지만 시굴조사에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지형이 잘 남아있는 구릉이 넓어 이 일대에 청동기시대 취락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인접한 수산리 지석묘군, 노음리유물산포지①과 더불어 동해에 접한 왕피천변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15) 울진 성류굴(蔚珍 聖留窟)⁶³⁶

근남면 구산리 산30번지 일원으로 왕피천의 동쪽 해발 20m의 지대에 위치하는 800m 정도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굴은 내부의 석순을 통해볼 때 약 2억 5천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유굴(仙留窟), 장천굴(掌天窟)이라고도 불리며, 성류굴이란 이름은 임진왜란 때 부처를 이 굴에 피난시켜 보호하였다는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성류굴 내에서는 2014년 신라인들이 방문한 명문이 발견되었고, 2019년에는 신라 제24대 진흥왕이 560년 6월 성류굴을 다녀간 기록이 새겨진 명문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155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주굴은 길이 약 330m, 지굴은 길이 약

633. 蔚珍郡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앞 책, 265쪽

634. 蔚珍郡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위 책, 266쪽

63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3, 「울진 망양정 공원정비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울진 망양정 공원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악보고서」; 蔚珍郡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앞 책, 296쪽

636. 蔚珍郡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위 책, 291쪽

540m로 총연장 길이는 약 870m에 이른다.

한편, 왕피천변에 위치한 입지와 동굴의 규모로 보아 선사시대 이후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초 성류굴 개발시에 마제석검 1점이 채집되었으나 실물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사진만 남아 있다. 재질이 점판암인 이단병식(二段柄式) 마제석검으로 자루[柄部] 부분만 남았는데, 길이는 7.3cm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16) 울진 수곡리 지석묘군(蔚珍 水谷里 支石墓群)⁶³⁷

근남면 수곡리 701-4번지 일원으로 수곡리 막금마을의 북쪽 폐교된 수곡초등학교 교정 서쪽에 2기의 지석묘가 유존하고 있다. 1기는 운동장에 접해 있는데 주변에 철책이 둘러져 있으며, 상석은 장방형으로 화강암재이며, 크기는 길이 2.6m, 너비 1.9m, 두께 0.45m 정도이다. 상석 아래로 4개의 지석이 확인되는데 북편의 지석은 장대석처럼 보인다. 다른 1기는 북쪽으로 14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상석은 장타원형으로 길이방향은 동서향이며, 크기는 길이 2.1m, 너비 1.2m, 두께 0.30m 정도이다.

17) 울진 수산리 지석묘군(蔚珍 守山里 支石墓群)⁶³⁸

왕피천이 동해로 흘러들기 직전에 형성된 수산리 수산동마을 내에는 3개의 지석묘군이 등간격을 이루며 확인된다. 나지막한 구릉의 말단부로 주변으로 산포리 선사유적, 노음리 유물산포지① 등이 분포하고 있어 지석묘군 주변의 구릉과 곡간평야 및 사구 일대에는 청동기 시대의 대규모 취락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다.

(1) 울진 수산리 지석묘

근남면 수산리 381-1번지 수산동마을 내 왕피천변의 나지막한 독립구릉에 있는 지석묘이다. 수산리 굴참나무 옆에 위치하며, 상석의 크기는 길이 1.9m, 너비 1.1m, 두께 0.35cm 정도이고, 길이방향은 북동-남서향이나 비스듬히 놓여있어 원상인지 알 수 없다. 상석의 윗면에는 8개의 바위구멍이 확인된다.

(2) 울진 수산리 지석묘군①

근남면 수산리 474번지 일대로 수산동마을의 북쪽에 치우쳐 위치한 남북으로 긴 야트막한 구릉상에 지석묘군이 유존한다. 주변은 민가가 들어서 있고 구릉에는 팔각정을 세워 마을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모두 17기의 지석묘 상석이 확인된다. 남북으로

637.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위 책, 291쪽

638.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앞 책, 287~288쪽

22m 정도의 거리에 많은 기수가 남아있지만 몇 기는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1.1~2.4m, 너비 0.65~1.8m, 두께 0.27~0.65m 정도이다. 길이방향은 일정치 않지만 대체로 남북향이나 북서-남동향이다.

(3) 울진 수산리 지석묘군②

근남면 수산리 447-36번지 수산동마을 중앙에 위치한다. 수산리 굴참나무가 있는 구릉에서 북쪽으로 100m 가량 올라가면 민가 사이에 3기의 지석묘 상석이 유존한다. 수산리 지석묘군①에서는 남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이다. 상석 3기는 모두 편평한 화강암재이며, 길이방향은 남북향 또는 동서향으로 서로 달리하고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1.6~2.3m, 너비 0.7~1.4m, 두께 0.35m 내외이다.

18) 울진 신화리 지석묘(蔚珍 新花里 支石墓)⁶³⁹

북면 신화리 138번지 일원으로 신화리 구장정사 앞에 있는 민묘 주변에 위치한다. 지석묘의 상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현재에는 절반 정도가 묻혀 있다. 과거 울진군지의 자료에는 상석은 방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길이 1.7m, 폭 1.3m, 높이 0.8m이고, 장축은 남북방향이다. 지면이 낮은 남쪽에 지석 역할을 하는 큰 돌 1개가 고여 있다고 적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이 돌을 고인돌로 부르고 있다.

19) 울진 읍남리 산54-1유적(蔚珍 邑南里 山54-1遺蹟)⁶⁴⁰

유적은 울진읍 읍남리 산54-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유적이 입지한 읍남리 동쪽은 동해와 비래봉에 접하고, 서쪽은 악구산의 지맥인 봉림산과 금산이 마을 좌우측으로 뻗어 있다. 금산에서 발원하는 냇물이 하토일과 오개곡 사이를 지나 마을의 북쪽에서 남대천으로 흘러 들어 간다. 유적은 읍남리고분군 내에 포함되는데, 동쪽으로 뻗어내린 구릉 말단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고분군이 분포하는 구릉의 남동쪽 사면 아래쪽에서 확인되었는데, 삼국시대 제39호묘가 들어서며 남서쪽이 상당부분 파괴되었으며, 남동장벽부는 자연유실로 훼손된 상태이다. 내부시설은 벽구와 소형의 수혈 및 주혈이 확인된다. 내부에서 작은 무문토기편이 확인되고 지석으로 추정되는 미완석 석기 1점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유존상태가 좋지 않고 출토유물도 거의 없지만 읍남리 일대에 청동기 문화가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39. 蔚珍郡·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위 책, 280쪽

640. 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울진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영남문화재연구원, 2018, 『울진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蔚珍 邑南里古墳群』

20) 울진 정명리 지석묘(蔚珍 正明里 支石墓)⁶⁴¹

기존에 삼산리 지석묘로 알려지며 소재지가 기성면 삼산리 1200번지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기성면 정명리 1204번지에 해당하여 유적명칭을 변경하였다. 사동리에서 삼산리마을로 가면 한곡재를 넘으면 방울천변 북쪽으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곡간 평야인 아니골이 나온다. 이 아니골 중앙부로 산자락을 타고 도는 삼산신흥로가 급격하게 깎어지는 부분의 남쪽 20m 지점에 지석묘 상석으로 보이는 암괴가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6m, 너비 1.4m, 두께 1.4정이며 부정형의 화강암이다. 장축은 남서-북동향이나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석묘의 서편 200m 지점에도 지석묘가 있었다고 한다.

21) 울진 죽변리유적(蔚珍 竹邊里遺蹟)

울진읍에서 7번 국도를 따라 강원도 삼척시 방면으로 약 6km 진행하면 죽변교차로가 나오며, 여기에서 죽변면소재지 방면으로 약 3.6km 진행하면 죽변항에 이른다. 유적은 죽변만의 북동쪽 동해 방향으로 돌출된 해발 10~50m를 전후한 구릉(해안단구)의 정선부와 말단부에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 구릉 일대는 신석기시대 조기~중기에 이르는 대규모 취락이 분포하며, 삼국시대 죽변성지가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이 구릉에 위치한 죽변리 15-100번지, 죽변리 15-15번지, 죽변리 5-1번지에서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1) 울진 죽변리 15-100유적⁶⁴²

유적은 해발 31.7m 정도의 구릉 정선부에 조성되어 있는데,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동남쪽으로 접해서는 죽변리 15-15유적이 위치한다.

주거지는 말각(장)방형으로 남장벽 일대는 자연유실되어 바닥선만 확인된다. 규모는 길이 6.72m, 너비 3.95m, 깊이 0.40m 정도이다. 내부시설은 노지 2기, 타원형 수혈 1기, 벽구 1기, 주혈 5개가 확인되었다. 부정형의 노지는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2개가 엇갈리게 확인되며 크기는 직경 40cm이다. 수혈은 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크기는 길이 142cm, 너비 77cm, 깊이 6cm 정도이다. 벽구는 북쪽벽을 끼고 돌다가 주거지 가운데를 가로질러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평면‘ㄱ’자상을 보인다. 주혈 5개는 동쪽과 서쪽 벽의 가장자리에 배치되었는데, 크기는 직경 25~30cm, 깊이 15cm 내외이다. 유물은 동쪽벽 가장자리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외반구연옹 등 4점이 출토되었고 서북쪽 가장자리에서는 무문토기 발이 확인되었으며 일부는 유실되어 4m 가량 떨어진 암갈색사질토 내에서 수습되었다. 그리고 바닥면에서 주거지 폐기 이후에 유입된 신석기시대 조기의 토기편과 석재품 등이 출토되었다.

641.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앞 책, 318쪽

642. 삼한문화재연구원, 2017, 앞 논문

내부에서는 지붕과 기둥의 부재로 사용된 목재가 확인되었는데, 방사선탄소연대 측정결과 BP 2,420±30과 BP 2,490±30년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 울진 죽변리 15-15유적⁶⁴³

유적은 해발 31.4m 정도의 구릉 정선부에 조성되어 있는데,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서북쪽으로 접해서는 죽변리 15-100유적이 위치한다.

주거지는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남동쪽은 절개되었고, 남서쪽은 경사면에 해당하여 벽면이 자연유실되어 바닥흔적만 남아있다. 규모는 현길이 3.9m, 너비 5.4m, 깊이 0.42m 정도이다. 내부시설로는 수혈과 벽구, 주혈 등이 확인된다. 수혈은 중앙과 남서쪽 가장자리에서 각각 확인되었는데, 중앙수혈의 크기는 길이 113cm, 너비 62cm, 깊이 9cm 정도이고, 남서쪽 수혈은 직경 55cm로 내부에서는 응회암재 갈돌이 출토되었다. 벽구는 북동쪽 벽면을 따라 벽구가 굴착되어 있다. 주혈은 7개가 확인되었는데, 크기는 직경은 20~25cm이며, 깊이는 15cm 내외로 벽면 가장자리와 중앙에 나란히 3열씩 횡으로 배치되어 6주식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외반구연옹·무문토기 저부·갈돌 등과 바닥면에서 주거지 폐기 이후에 유입된 신석기시대 조기의 토기편과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내부에서는 지붕과 기둥의 부재 및 벽면보강용 각재로 사용된 목재가 확인되었는데, 방사선탄소연대 측정결과 BP 2,520±40과 BP 2,480±40년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3) 울진 죽변리 5-1유적⁶⁴⁴

유적은 해발 4m 정도의 구릉 서사면부에 조성되어 있는데,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자연유실로 일부만 남아 있는데, 잔존규모는 현 길이 2.0m, 너비 2.0m, 깊이 0.8m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는데, 벽면에 붙은 바닥에는 할석 5매가 열을 지어 놓여 있다. 수혈식 노지는 남쪽이 유실되어 정확한 규모나 구조를 자세히 알 수 없으며 크기는 길이 74cm, 너비 38cm, 깊이 3cm 정도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와 동체부 편 각각 1점이 출토되어 시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죽변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구조와 출토유물은 인근의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들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청동기시대 외반구연옹이 출토되는 주거지는 각각 공열문토기와 점토대토기의 공반양상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공열문토기+외반구연옹이 공반되는 주거지는 평면 세장방형·장방형을 띠는 역삼동식 주거지로 분류되며, 춘천 현암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반면, 점토대토기+외반구연옹이

643. 삼한문화재연구원, 2017, 위 논문

644.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蔚珍 竹邊里 5-1番地 遺蹟』

공반되는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방형을 띠며 천전리식 주거지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강릉 방동리유적과 고성 초도리유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죽변리유적과 같이 외반구연옹만 출토되는 주거지는 장방형·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며 대표유적으로는 화천 거례리유적을 들 수 있다. 이로 보아 죽변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세장방형에서 장방형으로 주거지 형태의 전개, 즉 역삼동식·천전리식 혹은 외래계 주거지의 변화상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죽변리 유적의 3개 지점에서 확인된 주거지 3기는 모두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에 조성된 동시기 취락에 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죽변리 15-100유적과 죽변리 15-15유적의 주거지는 6m 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주거지의 구조 및 출토유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도 모두 BC 650~490년 사이로 측정되어 청동기시대 후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죽변리유적은 동북지역과 남동지역, 내륙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이 결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이라고 볼 수 있다.

22) 울진 진복리 지석묘(蔚珍 進福里 支石墓)

근남면 진복리 5-4번지 일원으로 진복 마을에서 북쪽으로 100m 떨어진 해안으로 돌출한 산 아래에 지석묘 1기가 위치하는데, 전면에는 동해안의 작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지석묘는 지상에 돌출한 작은 자연암과 위에 부정장방형의 큰 화강암을 올려놓은 형상이다. 이 자연암과는 외면이 수직으로 높게 노출되어 있어 마치 북방식 지석묘처럼 보인다. 상석의 규모는 길이 2.2m, 너비 1.5m, 두께 0.5m 정도이고 장축은 남북방향이다. 전면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근 해안가인 진복리 35번지에 지석묘 1기와 진복리 644번지에 지석묘 1기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3) 울진 척산리 지석묘(蔚珍 尺山里 支石墓)⁶⁴⁵

기존에 정명리 지석묘로 알려지며 소재지가 기성면 정명리 산34번지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기성면 척산리 산28-4번지에 해당하여 유적명칭을 변경하였다. 척산리 척산마을에서 척산천 제방 길로 1.8km 가량 가면 산자락에 명계서원이 나온다. 이 명계서원에 도달하기 전에 동편 산 밑에 지산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서북쪽으로 900m 지점에 마니골과 망골사이로 뻗어내린 산자락에는 순흥인(順興人) 안성행(安聖行)의 묘(墓)가 있다. 이 묘역 앞에 지석묘로 추정되는 큰 편평석 1기가 있다. 이곳은 척산천이 S자형으로 휘감아 돌아가는 천변의 얕은 구릉지에 해당된다. 상석의 크기는 장축이 2.7m, 단축이 1.8m, 두께가 0.7m 정도이고, 길이

645.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위 책 321쪽

방향은 동서향이다. 하부는 일부 노출되어 있으나 구조는 알 수 없다.

24) 울진 척산리 지석묘군(蔚珍 尺山里 支石墓群)⁶⁴⁶

기성면 척산리 367-1 일원으로 새터마을에 위치한 척산리 성황당과 그 주변의 논밭에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암괴가 10여기 있다. 이곳은 마을 서쪽의 구릉성 산지가 끝나는 지점으로 동쪽으로는 기성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동해와는 450m 정도 떨어져 있다. 지석묘로 추정되는 상석은 하부가 대부분 논바닥에 덮여 있어 하부의 구조는 파악되지 않는다.

25) 울진 화성리 지석묘(蔚珍 花城里 支石墓)⁶⁴⁷

죽변면 화성리 산206번지에 위치하며 기존 봉평리 지석묘로 알려진 것이다. 울진읍과 죽변면의 경계지점으로 반정교 북동편 산구릉 하부의 민묘에 1기의 지석묘 상석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장방형 상석의 크기는 길이 1.3m, 너비 1.0m, 두께 0.55m 정도로 길이방향은 동서향이다. 윗면에 치석흔과 성혈 1개가 확인되고, 상석 아래에는 지석으로 보이는 돌이 일부 드러나 있었으며, 주변에서 무문토기편이 소량 수습되었다고 한다.

26) 울진 황보리 유물산포지(蔚珍 黃堡里 遺物散布地)⁶⁴⁸

기성면 황보리 산193-1 일원이다. 황보리 금강마을에서 서쪽으로 포장길을 타고 가서 황보천변의 금강들을 지나면 우측으로 공동묘지가 나온다. 이 공동묘지가 있는 구릉과 그 맞은 편의 구릉 사이의 골짜기에는 계단식 논과 밭이 있는데, 과거 이 주변에서 석부를 비롯해 청동기시대의 석기들이 채집되었다고 한다. 동해선 철도노선이 유물산포지를 통과한다.

27) 울진 후정리 877유적(蔚珍 後亭里 877遺蹟)⁶⁴⁹

유적은 죽변면 후정리 877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울진읍 연호교차로에서 7번 국도를 따라 삼척시 방향으로 8km 정도 가면 매정육교가 나오는데, 북동쪽으로 인접한 구릉 상에 죽변 비상활주로가 개설되어 있다. 유적은 매정육교와 비상활주로 사이의 구릉에 해당하는데, 매정마을의 남쪽 수실골과 박시골 사이의 능선상으로 해발 50~63m의 동남사면부에 해당한다.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청동기시대 유구는 I 구역에서 주거지 3기, II구역에서 주거지 3기가 조사되어 모두 6기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호·무문토기 발·합인석부·석착·반

646.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위 책, 312쪽

647.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앞 책, 337쪽

648.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위 책, 323쪽 ; 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동해선 철도건설사업(포항~원덕간)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울진군 구간)」

649. 관동대학교박물관, 2007, 「울진 죽변지구 신규조성산업단지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울진 죽변지구 신규조성산업단지 부지 내 蔚珍 後亭里 遺蹟』

월형석도·석제방추차·석제장신구·지석·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길이방향이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말각장방형 등 다양하지만, 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되어 명확하지 않다. 잔존길이는 2.8~10.8m 정도로 2.8~3.5m 정도의 소형이 4기로 가장 많고, 6.44m가 1기, 10.8m가 1기 있다. 인근의 덕천리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와 규모와 유존양상이 비슷하다. 내부시설은 6기 모두 벽구가 돌아가며, 노지는 1기에서만 확인되고 내부 수혈이나 주혈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의 폐기는 이주에 의한 방치나 화재로 추정된다.

유물은 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공렬문토기 발 1점, 무문토기 발 1점, 무문토기 호 3점, 적색마연토기 호 1점, 무문토기 저부 및 동체부편 9점 등 15점이 보고되었다.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은 공렬문토기로 구연단에서 1mm 정도 떨어져 외면에서 내면으로 투공하였는데, 일정한 폭을 지니며 전체에 열을 이루며 돌아간다.

석기류로는 석제방추차 2점, 석제장신구 3점, 합인석부 5점, 키조개모양석부 1점, 편평양인석부 2점, 편인석부 2점, 석착 1점, 석도 1점, 석구 1점, 지석 2점, 미완성석기 및 박편 4점 등 24점이 출토되었다. 수렵구가 전혀없고 주로 농·목공구 일색으로 출토되어 석기류만으로 보면, 수렵보다는 농업 및 채집위주로 생계를 영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주거지의 형태와 단순 공렬문토기, 합인석부의 형태 등의 특징을 통해 보면,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I 구역의 주거지 3호(A기관:BP 2,460±30, B기관: BP 2,400±40), II 구역의 주거지 4호(A기관: BP 2,880±30, B기관: BP 2,860±40)로 도출되었다. 이로 보아 상호 150m 정도 떨어진 2개의 구릉상에 각각 조성된 주거지군 간에 일정한 시간 차[약 400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28) 발견문화재(율진읍 고성리 구만(丘萬)마을 석축)

1960년대 초에 출토되었으나 실물(實物)의 행방은 알 수 없고 당시의 사진만 남아 있다. 모두 4점인데 단면은 편6각형(扁六角形)이다. 이중 1점은 유경식(有莖式)이고 나머지 3점은 삼각만입형(三角灣入形)이다. 유경식 석축의 길이는 8.5cm이고, 삼각만입형 석축의 길이는 각각 7.8cm, 7.9cm, 8.5cm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물로 추정된다.